



남산의 귀화식물2 서양등골나물



작은 통꽃이 모여 피는 꽃



서양등골나물 잎



숲 그늘, 그리고 꿀벌

햇빛을 좋아하는 귀화식물. 하지만...

대부분의 귀화식물은 햇빛을 좋아하지만, 일부는 그늘 혹은 반음지에서 더 잘 자랍니다. 서양등골나물은 그늘을 좋아하는 대표 귀화식물입니다. 가을이 되면 하얀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도시 숲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종종 봤을 것입니다.

[글 / 사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]



계곡 인근 군락지



바위틈에서도 쑥쑥~



반그늘에서 잘 자란다

북아메리카가 고향인 서양등골나물은 높이 1m 이상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. 197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약 20년 동안 서울 일대에서만 확인됐으나, 지금은 중부지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엄청난 번식력으로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, 2002년 환경부가 '생태계교란 생물'로 지정했습니다.

남산의 서양등골나물

서양등골나물은 아까시나무 숲과 소나무 숲에서 잘 자랍니다. 남산에 소나무와 아까시나무가 많은 영향으로 1980년대-'남산 서양등골나물'이 유명했습니다. 1980~1990년대에 비해 줄었지만 지금도 9~10월 남산 산책로 또는 계곡 주변에서 서양등골나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. 공원 관계자가 매년 제거작업을 하지만 귀화식물 특유의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.

